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李 基 白

(西江大學 教授)

□…… 本文은 當局 研究室의 專門職을 위한 「세미나」의 一環으로 70년 ……□
□…… 3月 12日에 當局 圖書室에서 發表한 것을 錄音 全載한 것임. ……□

1. 역사학(歷史學)과 고고학(考古學)

「한국(韓國) 고대사(古代史)와 고고학(考古學)」이라는 제목 아래 무엇이고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要請)받고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 자신(自信)은 고고학(考古學)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지식(知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요청(要請)을 받았을 때, 일반사가(一般史家)의 입장(入場)에서 고고학(考古學)을 전공(專攻)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응낙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두 시간 얘기를 하고, 한 시간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계획(計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만, 제가 두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릴 재료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길 해 나가다가 빨리 끝나게 되면 여러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역사학(歷史學)하고 고고학(考古學)하고의 일반적(一般的)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들은 각기 독자적인 학문적(學問的) 전통(傳統)을 지니고 있고, 또 독자적인 학문적(學問的) 방법(方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입문(歷史學入門) 같은 데서는 역사연구(歷史研究)을 위한 중요한 보조과학(補助科學)의 하나로서 이 고고학(考古學)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사(古代史)를 하는데 고고학(考古學)의 중요성(重要性)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저 자신 고대사(古代史)를 연구(研究)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고고학(考古學)의 성과(成果)를 항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서는 고대사(古代史)를 깊이 이해(理解)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다는 건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일반사가(一般史家)의 입장에서 볼 때,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이 열심히 재료를 수집(蒐集)하여 정리(整理)해 준 것, 말하자면 벌들이 부지런히 모아놓은 단 꿀을, 그냥 마셔버리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역사학(歷史學) 쪽에서 고고학(考古學)에 대하여 기여(寄與)할 수 있는 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이 양자(兩者)가 결국 서로 협력(協力)을 해가는 동안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問題)들이 풀리게 되리라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歷史學)과 고고학(考古學)의 긴밀한 상호의존(相互依存) 관계는, 양자(兩者)가 독립된 학문적(學問的) 전통(傳統)을 가지고 있고 연구방법(研究方法)이 다르고 또 연구대상(研究對象)으로 하는 시대(時代)가 다르고, — 물론 겹친 시대(時代)도 있습니다만, 가령 역사고고학(歷史考古學)이 되면 겹치게 되겠습니다만, — 따라서 선사고고학(先史考古學)은 역사학(歷史學) 즉 문헌(文獻)을 가지고 한다는 뜻의 좁은 의미의 역사학(歷史學)에서는 범위(範圍) 밖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서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兩者)는 모두 인간(人間)의 과거(過去) 생활(生活)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人間)의 과거 생활(過去生活)을 재현(再現)시키는 것, 우리나라 역사(歷史)로 말할 때는 우리나라 고대사(古代史)를 다시 재현(再現)시켜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研究)의 대상(對象)을 꼭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자료(資料)로 하여 연구(研究)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分析)하고 정리(整理)하는 방법(方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差異)는 있지만 이 둘은 꼭 같은 목적(目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人間)의 과거(過去)를 재현(再現)시킨다 하는 것이 만일 넓은 의미(意味)의 역사학(歷史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고학(考古學)도 결국은 역사학(歷史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역사학(歷史學)과 고고학(考古學)은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關係)를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사시대(先史時代)와 역사시대(歷史時代)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혹은 또 유사이전(有史以前), 유사이후(有史以後)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무의미(無意味)한 구분입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자료(資料)의 문제이지 이것이 인간(人間)의 생활(生活)을 재현(再現)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꼭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文字)가 없는 시대(時代)는 역사(歷史)가 없는 시대(時代)냐고 하면 그렇게는 생각 안됩니다. 물론 그 때의 역사(歷史)란 기록(紀錄)된 역사(歷史)란 뜻이지만, 기록(紀錄)된 것만 역사(歷史)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역사(歷史)의 근본(根本)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과거(過去)에 우리는 습관(習慣)에 따라 그렇게 익혀왔지만, 이런 점에서부터 우리가 근본적(根本的)으로 생각을 달리하여야겠고, 그러한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고고학(考古學)과 역사학(歷史學)을 대하는 태도(態度) 자체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좀더 근본적(根本的)으로 반성(反省)이라할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고학(考古學)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유적(遺跡)·유물(遺物)이 되겠는데, 그 유적(遺跡)·유물(遺物)을 자료(資料)로 해서 그 양식(樣式)이나 전파관계(傳播關係)와 같은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使用)한 인간(人間)들, 한국사(韓國史)에서 말하면 우리의 조상(祖上)들,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사용(使用)했으며 또 그것을 사용(使用)함으로써 그 생활(生活)이 어떻게 운영되어 나갔으며, 어떻게 변천(變遷)되어 나갔느냐, 이런 점에 관심(關心)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학(歷史學)에서도 그렇습니다. 역사학(歷史學)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자(文字)로 표시된 기록(紀錄)만을 분석(分析)해가지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時代) 인간(人間)의 생활(生活), 이것은 의식주(衣食住) 생활(生活)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社會生活), 사회형태(社會形態)라든가 혹은 정치구조(政治構造)라든가, 경제조직(經濟組織)이라든가 하는 인간생활

(人間生活) 자체를 재현(再現)시키는 그런데에 우리의 목적(目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과거(過去)의 고고학(考古學)에서 해오던 방법(方法) 혹은 지금까지의 고고학(考古學)의 경향(傾向)이라는 것이 다시 반성(反省)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強調)하는 것이 제 애기의 목적(目的)이 되고 또 결론(結論)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물(遺物)·유적(遺跡)을 통(通)해서 나타나는 주로 경제적(經濟的)인 면(面), 이것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과거(過去)에 비교적 관심(關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렵(狩獵)을 했다가 혹은 채집(採集)을 했다가 하는 먹는 음식을 획득(獲得) 생산(生産)하는 방식(方式)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관심(關心)을 가졌었지만, 그것을 어떠한 조직(組織)을 통해서 생산(生産)하고 분배(分配)했느냐 하는 경제적(經濟的)인 구조(構造)나 사회적(社會的)인 조직(組織)에 대해서 과연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이 관심(關心)을 가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치(政治)라는 것이 인간(人間)의 생활(生活)에 얼마나 큰 구실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령 역사(歷史)를 이야기할 때 왕조(王朝) 중심(中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역사(歷史)의 줄기를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손쉬운 방법(方法)으로는 왕조(王朝)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政治)라는 것이 인간생활(人間生活)에 지대(至大)한 영향(影響)을 끼쳐 왔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이 유물(遺物)이나 유적(遺跡)을 분석(分析)해서 정치(政治)형태를 재현(再現)하여 보려는 그런 의욕(意慾)을 가졌었는가 이것이 문제(問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씨족사회(氏族社會)에 있어서는 그 사회조직(社會組織)이 어떠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이 언급(言及)한 일이 있었는가. 불행(不幸)히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 관한 논문(論文)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논문(論文) 중에서도 그런 유적(遺跡)·유물(遺物)을 통해서 그 사회조직(社會組織)에 언급(言及)한 것이 있었는가 의심(疑心)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 결국은 너무 제가 요구(要求)하는 점이 많고, 저같이 고고학(考古學)에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에서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이 연구(研究)해 놓은 성과(成果)를 가지고 자기대로의 결론(結論)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고고학자(考古學者)에게 책임전가(責任轉嫁)하는 것 같아 펍 죄송합니다. 다만 같은 역사(歷史)를, 같은 인간(人間)의 생활(生活)을 대상(對象)으로 하는 학문(學文)을 한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에 고고학자(考古學者)들도 궁극적(窮極的)으로는 생각이 미쳐야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강조(強調)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드시 위에 올라가서 씨족사회(氏族社會)에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정치(政治)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重要)하며, 왕조(王朝)라는 것도 무시(無視)할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현재(現在) 문자상(文字上)에 나타나는 최초(最初)의 왕조(王朝)인 고조선(古朝鮮)에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箕子朝鮮)·위씨조선(衛氏朝鮮)으로 내려가고, 또 북(北)에서는 부여(扶餘)·고구려(高句麗), 남쪽으로는 진국(辰國)과 삼한(三韓), 그리고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한 변천(變遷)하고 우리 고고학(考古學)의 성과(成果)하고를 어떻게 들어 맞춰야 하는 것인지 실로 커다란 문제(問題)입니다. 고고학(考古學)의 성과(成果)와 문자상(文字上)에 나타난 왕조(王朝)들과가 서로 맞추어져서 어떠한 연결(聯結)이 지어지면 우리나라 고대사(古代史)의 정리(整理)가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전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사회조직(社會組織)의 문

제라든가 경제조직(經濟組織)이나 사상적(思想的)인 계보(系譜)라든가 하는 허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을 맞추어야 되겠는데, 현재(現在)로선 가령 토광묘(土壙墓)를 위씨조선(衛氏朝鮮)에 들어 맞춘다든가, 혹은 지석묘(支石墓)와 연결시켜서 연구(研究)한 것이 전연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구체적(具體的)인 얘기를 한가지씩 한가지씩 해 볼까 합니다. 저는 고고학(考古學)의 논문(論文)을 애써 모으기는 합니다만 그때 그때 당장 필요(必要)치가 않고, 또 저 자신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더디어서 빨리 읽지를 못하는 관계로 일일이 고고학논문(考古學論文)을 소화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한 관계로 과거(過去)의 고고학(考古學)의 성과(成果)를 전부 정리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重要)한 문제(問題)들이 자연 빠지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現在) 제 나름으로 얻어진 고고학(考古學)의 성과(成果)에 대한 이해(理解)를, 일반사가(一般史家)들이 중요(重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연결(連結)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具體的)인 문제(問題)를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먼저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의 문제(問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손보기(孫寶基)선생이 석장리(石壯里)에서 대규모의 발굴작업(發掘作業)을 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지방(地方)에서 새로이 발견(發見)될 가능성(可能性)이 많다는 것을 일전(日前)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시대(時代)를 이해(理解)할 능력(能力)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첫 페이지가 다시 쓰여져야 할 단계이므로 보다 많은 관심(關心)이 기울어져야만 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 들어서면 역사(歷史)의 여명기(黎明期)라고 말할 수 있을 시대(時代)로서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關心)을 갖게 되는데, 뜻밖에 이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 관한 연구(研究)라는 것이 빈약(貧弱)한 것 같습니다. 가령, 저도 개설(概說)을 쓸 때 이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유적(遺跡)은 전국(全局) 각지(各地)에 널리 있다고 써 놓았습니다만, 이 시대(時代)를 대표(代表)하는 즐문토기(櫛文土器) 유적(遺跡)은, 즐문토기(櫛文土器) 자체는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적(遺跡)은 별로 조사(調査)된 것 같지 않습니다. 가령 패총(貝塚)이라든가 혹은 주거지(住居址)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유적(遺跡)하고 즐문토기(櫛文土器)와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물(遺物)만이 동떨어져서 그 양식(樣式)이나 문화적(文化的)인 계통(系統) 같은 것이 논의되어온 형편입니다. 물론 이 시대(時代)에 즐문토기(櫛文土器)와 같이 섞여서 나오는 석기류(石器類)의 용도(用途)라든가 주거지(住居址)의 내부구조(內部構造)에 대한 보고문(報告文)이 약간 있고 고찰(考察)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노력들이 다 쌓여서 결국 역사(歷史)의 재현(再現)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론(序論)에서 제시(提示)한 그런 문제의식(問題意識)에 서서 보게 된다면 좀더 생각해 볼 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령 당시의 사람들이 쓰던 석기(石器)나 토기(土器)나 이런 것들을 그들의 실제생활

과 연결시켜서 그 시대 사회를 재현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미 김정기(金正期)선생의 논문(論文)(考古學 第1)에 나와 있는 수혈거주지(竪穴居住地)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常識으로도 判斷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거지(住居址)들이 만일 하나의 취락(聚落)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조직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까지 발견된 것을 보면 한 군데 많이 군집(群集)되어 있는 주거지(住居址)가 없습니다. 여럿 있는 경우야 세 개 있는 곳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밖에는 하나나 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주거지(住居址)의 발굴(發掘)이라는 것은 그것을 찾기가 꽤 힘든 것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떤 지역(地域)에 집이 하나만 오뚝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한 군데에 여럿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컨대 패총(貝塚)같은 것이 그렇게 오랜 수백년동안 가면서 쌓여졌다 할 것 같으면, 일정한 지역(地域)에 취락(聚落)이 있어서 집단생활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집자리가 하나 나오는 그 주위에 또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地方)의 집자리를 또 찾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 나온 그 지역에서 찾아볼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밀집되어 있는 취락(聚落)의 양상(樣相)을 구명(究明)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의 주거지(住居址)라도 그 주거지(住居址)의 직경(直徑)이 얼마라던지 깊이가 얼마라던지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基本的)인 조사(調査)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겠고 필수적(必須的)인 지식(知識)이겠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느 정도(程度)의 인원(人員)이 살았을 거다 하는 추측(推測)을 해 볼 수는 없겠는가. 한 주거(住居) 안에 여러 사람이 살았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관계(關係)를 어떻게 추정(推定)해 볼 수는 없겠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내부(內部)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주거지(住居址)와의 관계(關係)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딱 미개민족(未開民族)들의 가옥구조(家屋構造)와 생활(生活)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기둥자리가 어디고 노지(爐址)가 어디고 하는 것보다 딱 요소(要素)를 발견(發見)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반사가(一般史家)로선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게 욕심(慾心)입니다. 그래서 즐문토기(櫛文土器)와 연결도는 유적(遺跡)들, 특히 주거지(住居址)라는 것이 그 시대(時代)의 사회조직(社會組織)과 밀접한 관계(關係)를 가질 것 같은데, 가령 남한(南韓)에서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주거지(住居址)가 하나도 발견(發見)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령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의 유적(遺跡)만 하더라도 최근 10여(餘)군데나 가능성(可能性)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남한(南韓) 전체에서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집자리가 하나도 안나올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이 있습니다. 주거지(住居址)는 땅 속에 있는 것이니까 표면에 나타나 보이지 않고 또 흙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은 있습니다. 또 국민(國民) 전체의 여기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해 주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점을 고려에 놓더라도 이렇게까지 발견 안된다는 것은 무슨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분(古墳)같은 것을 몇백개 파는 것 보다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순전한 즐문토기(櫛文土器)가 나오는 주거지(住居址)를, 그것도 고립된 한 개가 아니라 밀집된 상태로 발견 조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3.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우리나라에서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존재(存在)는 극히 최근(最近)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북한(北韓)에서 처음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가 독자적으로 있었다는 설(說)이 나와가지고 오늘날 흔히 이것이 얘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보고(研究報告)에 의하면 남한(南韓)에는 독립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가 없었던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 존재(存在)가 의심(疑心)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 막연한 의견(意見)입니다만, 한번 더 재고(再考)할 필요(必要)가 있지 않나 합니다. 가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가 우선 북한(北韓)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상한(上限)은 적어도 B.C. 8세기까지는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윤무병(尹武炳) 선생이 소위 만주식(滿洲式)이라고 분류한 청동검(靑銅劍)의 상한년대(上限年代)가 B.C.8~7세기로 되어 있고, 또 김재원(金載元)선생과 윤무병(尹武炳)선생이 쓴 「韓國支石墓研究」(국립 박물관)에도 지석묘(支石墓)의 상한(上限)을 역시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인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철기(鐵器)가 사용된 것은 중국(中國)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초(初) 춘추시대(春秋時代) 말(末), 그러니까 B.C. 4세기 초(初)가 될 것이고 남한(南韓)에 오면 조금 시대(時代)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북한(北韓)에서 B.C. 8세기에 청동기(靑銅器)가 사용되고 B.C. 4세기에 철기(鐵器)가 쓰여진다면 4세기 동안 북한(北韓)에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가 존속(存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4세기 동안에 남한(南韓)에는 청동기(靑銅器)가 전해질 가능성(可能性)이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을 가르는 경계선이란 자비령(慈悲嶺)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강(漢江)으로 잡읍니다만 이것은 교통(交通)의 큰 방해물(妨害物)은 아닙니다. 자비령(慈悲嶺)이나 한강(漢江)이나 하는 이런 것이 4세기 동안 북한에서 성하든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를 남쪽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倚門)은 극히 상식적(常識的)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疑問)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소위 만주식(滿洲式) 청동검(靑銅劍)이 전라남도(全羅南道)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4세기 동안에 과연 이쪽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 커집니다.

종래에는 B.C. 4세기에 북한(北韓)에 철기(鐵器)가 들어왔지만 B.C. 2세기 말(末)에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어 가지고 第二次 철기문화(鐵器文化)가 들어와서 그것이 청동기와 합쳐서 한강(漢江) 남쪽으로 왔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세기가 아니라 무려 6세기의 긴 기간이 되는데, 그런 오랜 기간 문화적인 낙차가 이 남북(南北) 양쪽 사이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想像)을 절(絶)합니다. 그러니까 이점 남한(南韓)에서 청동기(靑銅器)만이 나오는 유적(遺跡)에 대한 관심(關心)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잊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동기만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철기(鐵器)가 없었다고 하는 증거(證據)는 없다고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狀況) 하에서는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가 단독적으로 존재해 있었다는 것이 더 논리적(論理的)일 것 같습니다. 너무 신중(慎重)한 나머지 이러한 결론(結論)들을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남한에서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유무(有無) 문제(問題)는 여러 가지 문

제와 얽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초기(初期)의 국가(國家)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國家)로 볼 때는 무엇 보다도 고조선(古朝鮮)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고조선(古朝鮮)이 지금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오는 연대(年代)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위씨조선(衛氏朝鮮)이 서기(西紀) 이전(以前)에 있었고 그보다 앞서 기자조선(箕子朝鮮) 그리고 단군조선(檀君朝鮮)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약간 빗나갑니다만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문제도 사실 이것이 좀더 얘기가 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헌사가(文獻史家)들은 한결같이 기자조선(箕子朝鮮)이 없었다고 하고 있는데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증명(證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뒷받침이 될 자료들이 틀림없이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 설명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여튼 고조선(古朝鮮)하면 고조선(古朝鮮)의 문화(文化)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적(先進的)인 문화(文化)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고조선(古朝鮮)을 중심(中心)으로 해서 있던 문화(文化)가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와 관계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고조선(古朝鮮) 북(北)쪽의 송화강(松火江) 유역(流域)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여(扶餘)라든가 남(南)쪽으로 한강(漢江)을 중심(中心)으로 해서 낙동강(洛東江) 금강(錦江) 일대(一帶)까지 퍼져있었다고 생각되는 진국(辰國)이라든가도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안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현재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외적(對外的)인 문제(問題), 즉 중국측(中國側)에서 자기네와 교섭(交涉)해 오는 어떤 대표적(代表的)인 부족국가(部族國家)를 중심(中心)으로 해서 그냥 그 전체(全體)를 실은 정치적(政治的)인 통일(統一)이 없는데 막연(漠然)하게 부른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 청동기(靑銅器) 문제(問題)와 얽혀 있지 않나 합니다. 북한(北韓)은 우리가 연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적어도 남한(南韓)의 경우에 청동기(靑銅器)를 사용하던 연대(年代)라든가 철기(鐵器)와의 관계라든가 하는 것을 살핍으로 해서, 남한(南韓)에서 맨처음 있었다고 하는 진국(辰國)과 같은 존재(存在)가 더 명확(明確)하게 들어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歷史家)들이 문헌상(文獻上)으로 글자를 가지고 「辰」자(字)가 「衆」자(字)가 되어야 한다든가 그냥 「辰」자(字)가 옳다든가 해서 진국(辰國)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논의(論議)를 할 정도(程度)인데, 그런 문자(文字)의 풀이만 가지고서는 이런 문제들이 풀려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고학(考古學)의 도움을 빌어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와 관련해서 문화권(文化圈)의 문제(問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특히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의 주장(主張)과 맞서게 됩니다.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은 흔히 우리나라를 한강(漢江) 정도로서 허리를 끊어가지고 남방문화권(南方文化圈)과 북방문화권(北方文化圈)의 둘로 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문화권(南方文化圈)과 북방문화권(北方文化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남(南)쪽과 북(北)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양(南洋)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대만(臺灣)·일본(日本)까지를 포함한 해양문화권(海洋文化圈)속에 신라(新羅)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몽고(蒙古)라든가 만주(滿洲)·시베리아를 포함(包含)한 북방문화권(北方文化圈)에다가 고구려(高句麗)를 끌어넣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적(民族的)인 소속(所屬)과 문화적(文化的)인 계통(系統)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現在)의 한국(韓國)은 남방문화(南方文化)에 기원(起源)을 둔 신라(新羅)의 발전(發展)이요, 고구려(高句麗)는 만주족(滿洲族)이 되어 버립니다. 뿐 아니라 현재(現在)의 남북한(南北韓)의 분열(分裂)을 마치 역사적(歷史的)

인 정당한 이유(理由)가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삼품창영씨(三品彰英氏) 같은 사람이 쓴 「南鮮과 北鮮」(1957)이라는 책은 그런 식(式)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문화권(文化圈)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문화권(文化圈)의 설정(設定)은 물론 인류학(人類學)이나 민속학(民俗學) 같은 것을 가지고도 합시다만 고고학(考古學)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적지않은 관심(關心)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이 저렇게 일방적인 설(說)을 내는 한도(限度) 안에서는 우리도 좀 더 큰 관심(關心)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민속학(民俗學)이나 인류학(人類學)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대해서 관심(關心)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상한 경향(傾向)으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인데, 이 고고학(考古學) 계통(系統)에서 옹관문제(甕棺問題)를 해결한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의 예(例)가 되겠지만, 해결(解決)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삼국시대(三國時代) 이전(以前)에,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신라(新羅)라는 삼국(三國)이 되면 어느 정도(程度) 줄기가 서는데, 그 이전(以前)에 고조선(古朝鮮)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여(扶餘) 그리고 진국(辰國)·삼한(三韓) 등등 이런 국가(國家)들은 고고학(考古學)의 성과(成果)를 무시하고서는 거의 거론(擧論)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고고학(考古學)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무문토기(無文土器)관계의 주거지(住居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원용(金元龍)선생이 몇군데 소개(紹介)를 하고 있습니다. 무문토기시대(無文土器時代)의 주거지(住居址) 특히 단일(單一)한 주거지(住居址)의 조사(調査)뿐만 아니라 취락(聚落)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주거지(住居址)에 대한 조사(調査)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석리(水石里)에서는 여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論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하리(交河里)에 있는 주거지(住居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는 아닙니다. 특히 옥석리(玉石里) 주거지(住居址) 같은 것은 무문토기(無文土器) 관계(關係)의 주거지(住居址)로서는 굉장히 큰,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에서조차 볼 수 없는 거대(巨大)한 주거지(住居址)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지(住居址)에 대해서도 아가 말한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것과는 같은 얘기가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령 옥석리(玉石里)의 거대(巨大)한 주거지(住居址)라는 것은 무엇에 쓰여졌을까. 이것이 보통 주거지(住居址)인가. 그리고 그 부근에는 이와 관계되는 주거지(住居址)가 또 없는가. 이런 의문(疑問)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문토기시대(無文土器時代)의 주거지(住居址)도 그 시대(時代)의 사회(社會)를 구명(究明)해야 한다는 관심(關心)에서 좀더 깊이 연구(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석묘(支石墓)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석묘(支石墓)는 「韓國支石墓의 研究」라는 대저(大著)가 나와서 그 연대(年代) 상한(上限)을 B.C 8세기, 하한(下限)을 북한(北韓)에서는 B.C 4세기, 남한(南韓)에서는 B.C. 2세기까지로 잡으므로 해서, 과거(過去)에 지석묘(支石墓)에 대하여 갖고 있던 연대관(年代觀)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석묘(支石墓)에 대해서는 해방후(解放後)에 여러 사람이 많은 관심(關心)을 가지고 개별적(個別的)은 조사(調査)보고(報告)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석묘(支石墓) 및 지석묘(支石墓)에 따라 나오는 마제석검(磨製石劍)하고, 그리고 지석묘(支石墓) 다음 단계(段階)로 생각하고 있는 토광묘(土壙墓)와 거기에 따라 나오는 청동단검(靑銅短劍)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토광묘(土壙墓)와 청동단검(靑銅短劍)의 시대(時代)를 말하자면 북한(北韓)에서는 위씨조선(衛氏朝鮮)의 시대(時代)라고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 견해(見解)는 대체로 여기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시(爲始)조선과 토광묘(土壙墓)와 청동단검(靑銅短劍)에 대한 고고학적(考古學的)인 성과(成果)가 일단 결부되어서 생각되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식묘(支石墓)와 마제석검(磨製石劍)의 시대(時代)도 어떤 왕조(王朝)와 결부시켜 생각할 가능성이(可能性)이 있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위씨조선(衛氏朝鮮)보다 앞선 시대(時代)는 문헌상(文獻上)으로는 기자조선(箕子朝鮮) 그리고 단군조선(檀君朝鮮)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시다만, 만일 기자조선(箕子朝鮮) 같은 것이 존재(存在)할 가능성이(可能性)이 있다고 하면, 이 지식묘(支石墓) 혹은 마제석검(磨製石劍)에 어떤 시대적(時代的)인 변화(變化)라던가, 혹은 다른 형태의 묘제(墓制)나 금속기(金屬器)가 발견(發見)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現在)로선 그렇게는 설명이 안되니까 기자조선(箕子朝鮮)에 대한 해명(解明)도 고고학적(考古學的)인 면에서 접근(接近)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역사가(歷史家)의 입장(立場)에서는 자꾸만 이런식의 연구(研究)를 원(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이외에 지식묘(支石墓)들의 존재형태(存在形態)라고 할까 하는 것은 삼상차남(三上次男)교수가 분석(分析)하므로 해서 지식묘(支石墓)사회(社會)의 내부(內部)문제(問題)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지식묘(支石墓)가 잡다(雜多)하게 있는게 아니라 일정(一定)한 질서(秩序)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권력(勸力)의 세습(世襲)이라든가 혹은 몇 개의 지배가족(支配家族)의 병존(併存)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취급(取扱)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한 연대추정(年代推定) 등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한 여러 가지 점에 난점(難點)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지식묘(支石墓)를 통해서 구명(究明)하고자 한 사회조직(社會組織)의 문제가 「韓國支石墓의 研究」 같은 종합적(綜合的)인 대저(大著)에서 언급(言及)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또 하나 지식묘(支石墓)의 사회(社會)를 지배(支配)하고 있던 권력(勸力)의 크기의 문제(問題)가 있습니다. 지식묘(支石墓) 속에 묻혀있는 권력자(權力者)가 어느 정도로 넓은 땅과 어느 정도로 많은 인간(人間)을 지배(支配)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삼상차남(三上次男) 교수가 지식묘군(支石墓群) 사이의 거리(距離)를 따져보는 시도(試圖)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식묘(支石墓)의 개석(蓋石)을 운반(運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人員)이 동원됐는가 하는 계산(計算), 이런 것도 사실(事實)은 약간의 지식(知識)만 있으면 쉽게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만 한번 시도(試圖)해 보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모두 우리가 관심(關心)을 가져서 좋은 문제(問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묘(支石墓)와 동시(同時)에 존재(存在)하는 분묘양식(墳墓樣式)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에 석상분(石箱墳)이나 적석총(赤石冢)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의 관계(關係)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문화적(文化的)인 계통(系統)이라든가 그 정치적(政治的) 세력의 대립관계(代立關係) 라든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기(時期)의 지식묘(支石墓)나 청동무기(靑銅武器) 같은 것은 권력(勸力)을 쥔 지배자(支配者)들의 물건이겠습시다만, 이 시대(時代)의 생산도구(生産道具), 농업도구(農業道具) 같은 것은 지배자(支配者)들의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被支配者)들의 것이었을 듯 합니다. 이 시대(時代)에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나 혹은 또 유구석부(有溝石斧)가 들어와서 도작(稻作)이 이미 시작(始作)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리 대해서는 김원용(金元龍)선생(先生)의 논문(論文)이 진단학보(眞檀學報) 25·6·7 합병호(合併號)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작(稻作)이 가지는 사회적(社會的) 의미(意味)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必要)가 있지 않나 합니다. 농업(農業)뿐만 아니라 수공업(手工業)관계(關係)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시기(時期)에 수공업(手工業)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도는데, 주거지(住居址) 같은 데서 공장장(工作場)이나 저장고(貯藏庫) 같은 것은 발견(發見)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미성년집회(未成年集會)가 행(行)해졌다고 볼 수 있는 집합장소(集合場所) 같은게 마련된 건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일반(一斑) 부족원(部族員)들과 관계를 갖는 문제들입니다. 당시(當時)의 부족원(部族員)들은 자기(自己)들이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이다 하는 대립의식(對立意識) 보다는 사회적(社會的)인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이 더 강(強)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공동체적(共同體的)인 조직(組織)이 어떻게 변천(變遷)되어 나갔을까 하는 관심(關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고고학(考古學)이 공헌할 수 있는 분야(分野)가 아닐까 합니다.

4. 철기시대(鐵器時代)

철기시대(鐵器時代)로 넘어가면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는 볼 수 없던 금속제농구(金屬製農具)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報告)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제농구(鐵製農具)들에 대한 구체적(具體的)인 설명(說明)이 과거(過去)에 자세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령 철리(鐵犁)가 나오는데 그것이 동물(動物)의 힘에 의해서 경작(耕作) 됐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기(鐵器)를 사용(使用)하기 시작(始作)하고서부터 농경방식(農耕方式)에 커다란 변화(變化)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우경(牛耕) 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철(鐵)로 만든 낫(鐵鎌)의 사용(使用)은 수확(收穫)에 있어서의 변화(變化) 발전(發展)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농업(農業) 수확량의 증진(增進)을 추정(推定)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산(生産)의 발전(發展)이 철기시대(鐵器時代)에 와서 갑자기 이루어졌다면, 그 철기(鐵器)를 사용하던 시대(時代)라는 것이, 청동기(靑銅器)를 처음 사용하던, 즉 처음으로 금속기(金屬器)를 사용(使用)하던 것 못지않게 중요(重要)한 의의(意義)를 가진게 아닌가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역시 철제농구(鐵製農具)라던가 이런 것이 보고(報告)는 되어 있지만 그것하고 농업(農業)하고가 직결(直結)되어 설명(說明)된 부분(部分)은 아직 없지 않나 합니다. 이춘녕(李春寧)선생의 「李朝農業技術史」에서도 기원후(紀元後) 3~4 세기(世紀)를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업기술(農業技術) 발달(發達)의 획기적(劃期的)인 시대(時代)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發展)의 시기가 그렇게 후대(後代)로 내려가야 하나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의문점(疑問點)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北韓)에서 출토(出土)되는 철검(鐵劍) 등 철기(鐵器)가 시대적(時代的)으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것이라면, 적어도 북한(北韓)에서만이라도 재고(再考)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토광묘(土壙墓)와 청동단검(靑銅短劍)의 문제(問題)가 있는데, 이것은 지석묘(支石墓)와 마제석검(磨製石劍)에서부터 토광묘(土壙墓)와 청동단검(靑銅短劍)으로 이렇게 이행(移行)되어 가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것이 북한(北韓)에서는 위씨조선(衛氏朝鮮)과 연결(連結)지어져 생각되고 있는데, 그 토광묘(土壙墓)양식

(樣式)은 중국(中國)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의 민족(民族) 소속(所屬)이 큰 문제(問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본학자(日本學者) 중에는 토광묘(土壙墓)에 묻혀 있는 것을 중국(中國)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광묘(土壙墓)가 북한(北韓)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한(南韓)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주(慶州) 구정리(九政里)라든가에서의 청동기(靑銅器) 출토(出土) 유적(遺跡) 같은 것이 토광묘(土壙墓)가 아닐까하고 추측(推測)되고 있습니다. 만일 토광묘(土壙墓)에 묻혀 있는 사람이 중국인(中國人)이라면, 경주(慶州) 한 복판에 그러한 예리(銳利)한 동검(銅劍)을 사용(使用)한 중국인(中國人)이 와서 살았고, 그쪽의 지배력(支配力)을 중국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歷史的)인 사실(事實)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게 되면 한사군(漢四郡)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사군(漢四郡) 중의 하나인 진번군(眞番郡) 같은 것이 경주(慶州)에 까지도 뻗어있었다고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이 주장(主張)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광묘(土壙墓)의 본질(本質)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토광묘(土壙墓)는 북한(北韓)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남한(南韓)에 토광묘(土壙墓)가 없는 것은 아니며, 남한(南韓)에서의 토광묘(土壙墓)의 분포상황(分佈狀況)도 어느 정도 추측(推測)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거기에서 나온 유물(遺物)들이 있으니까 그 유물(遺物)을 통해서 그 민족적 소속(所屬) 같은 것도 추측(推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이 그러한 설(說)을 낸 이상(以上)은 우리가 좀더 관심(關心)을 가지고서 한사군(漢四郡)의 지배영역(支配領域)이 어디까지였나 하는 것을 추구(推究)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부(可否)간에 발언(發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청동단검(靑銅短劍)의 양식(樣式)이 우리나라의 독자적(獨自的)인 것이고 중국(中國)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실이 주목(注目)되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의 짐작일 뿐이고, 고고학(考古學)을 전문(專門)으로 하는 여러분께서 관심(關心)을 가지고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토광묘(土壙墓)의 분포(分佈), 특징(特徵), 그리고 민족적(民族的) 소속(所屬)이나 문화적(文化的)인 계통(系統), 이런 것들이 밝혀짐으로 해서, 한사군(漢四郡) 문제(問題) 뿐만 아니라 위시(爲始)조선으로 대표(代表)되는 대동강유역(大洞江流域)의 어던 정치적(政治的) 세력(勢力)과 영용(永用)이나 경주(慶州)를 비롯한 남한(南韓)의 정치세력(政治勢力)과의 연결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신라(新羅)의 국가형성과정(國家形成過程)을 해명하는 하나의 열쇠를 제공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토광묘(土壙墓)나 청동단검(靑銅短劍)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것은 그 연대(年代)의 하한문제(下限問題)입니다. 연대(年代)의 상한(上限)은 비교적(比較的) 논의(論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한(下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광묘(土壙墓)가 위씨조선(衛氏朝鮮)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시(爲始)조선의 멸망(滅亡)은 우리가 명확(明確)한 연대(年代)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는 추측(推測)이 가능(可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이런 토광묘(土壙墓)에 대한 연대추정(年代推定)이 가능(可能)하다면 그 다음에 토광묘(土壙墓)와 연결되는 무덤의 양식(樣式)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問題)가 자연히 나옵니다. 토광묘(土壙墓)에서 직접 고총고분(古塚古墳)으로 가느냐, 혹은 그 중간(中間)에 또 하나의 단계가 있어서 그것을 거쳐서 가느냐 하는 문제(問題)인데, 저는 잘 모르니까 이런 의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광묘(土壙墓)와 고총고

분(古冢古墳)과가 만일 직접(直接) 연결되고 토광묘(土壙墓)의 하한(下限)이 어느 정도 추측(推測)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총고분(古冢古墳)의 상한(上限)이라는 것이 역시 어느 정도 추측(推測)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총고분(古冢古墳)의 발생(發生)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三國時代)와 직결(直結)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時代的)인 하나의 선(線)을 그어 주는 것 같으므로 흥미(興味)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時代)에 관한 것으로 마구(馬具)와 차여구(車輿具)의 문제(問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重要)한 문제(問題)인 것 같은데요, 대개 보편은 철기시대(鐵器時代)에 들어와서 마구(馬具)와 차여구(車輿具)에 대한 문제(問題)가 제기(提起)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마구(馬具)의 문제(問題)인데 기마민족(騎馬民族)의 문제(問題)가 일본(日本)에서는 자주 나와서 국가(國家)의 기원문제(起源問題)와 직결(直結)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두 개의 설(說)이 대립(對立)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제삼자(第三者)의 입장(立場)에서 볼 때는 기마민족(騎馬民族)이 북구주(北九州)에 있는 사마대국(邪馬臺國)을 통해서 근기지방(近畿地方)으로 진출(進出)하여 대화정부(大和政府)를 건설하였다는 설(說)이 딱 합리적(合理的)일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日本) 사람들이 떠들어 놓은 것을 뒤따라 가는 듯한 감이 듭니다만 우리나라 역사(歷史)에서도 역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마민족(騎馬民族)과 그렇지 않은 민족과 사이의 전쟁(戰爭)에서 일어나는 차이(差異)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 전술(戰術)의 발달(發達)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時代)의 사회발전(社會發展)이 정복전쟁(征服戰爭)과 연결되는 것이고 보면 이 문제(問題)를 우리가 도외시(度外視)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제무기(鐵製武器)라든가 청동기무기(靑銅器武器)와 마찬가지로 말을 탄다는 것은 무기(武器)로서 중요(重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문제(問題)되어 봄직한 생각이 듭니다. 가령 고구려(高句麗)가 삼국(三國)에서는 가장 기마민족(騎馬民族)의 대표적(代表的)인 것이겠는데, 그러면 신라(新羅)나 백제(百濟)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백제(百濟)나 신라(新羅)에서 전쟁(戰爭)을 위해서 말을 타기 시작(始作)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그런 것이 백제(百濟)나 신라(新羅)의 흥기(興起)와 어떤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없는가 하는 점이 문제(問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과 동시(同時)에 철기시대(鐵器時代)에 들어와서 철(鐵)이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갖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철기(鐵器)는 청동기(靑銅器)와 달라서 무기(武器) 뿐 아니라 농구(農具)로도 사용(使用)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광범(廣範)한 용도(用途)를 가지고 또 사회적(社會的)인 커다란 변화(變化)를 가져올 것인데, 그러면 이 철기(鐵器)와 악랑군(樂浪郡)의 세력과는 어느 정도의 관계나 하는 것입니다. 이미 김원용(金元龍) 선생이 「三國의 開始에 關한 考察」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과거(過去) 악랑군(樂浪郡)을 통해서 철기(鐵器)가 우리나라의 사방(四方)으로 퍼졌다는 것이 재검토(再檢討)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범(李龍範)선생이 제기(提起)한 고구려사회(高句麗社會)의 흥기(興起)가 철(鐵)과 밀접한 관계(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설(說)도 방법론(方法論)으로 새로운 시도(試圖)인 것으로 삼국시대(三國時代)의 형성과정(形成過程)에 대한 연구(研究)에서 일반(一般)의 진보(進歩)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問題)가, 예(例)컨대 변한(弁韓)만 하더라도 철(鐵)을 생산(生産)해서 우

저(沃沮)나 낙랑(樂浪)·대방(帶方) 및 일본(日本)에까지 전(傳)하였다 하는 것이고, 고분(古墳)에서 철정(鐵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체계적(體系的)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계통(通)을 잡고 시대(時代)를 구명(究明)하고 또 사회(社會)와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具體的)인 국가(國家)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 하는 동안에, 삼국(三國)의 형성과정(形成過程)이라는 것이 새로운 서광(曙光)을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광묘(土壙墓)의 얘기에서도 비쳤습니다만, 고총고분(古冢古墳) 연대(年代)의 상한(上限)문제(問題)는 역시 큰 것 같습니다. 지금껏 많은 고분(古墳)들을 경주(慶州)라든가 그밖의 지방(地方)에서 발굴(發掘)해 왔는데, 그 상한(上限)에 대해서는 5세기(世紀) 내지 4세기(世紀)까지 올라간다고 추측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석묘(支石墓)·토광묘(土壙墓)·고총고분(古冢古墳)의 상한(上限)도 어느 정도 해명될 가능성(可能性)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연히 듭니다. 그러니까 묘제(墓制)를 중심(中心)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整理)해 보면, 그것이 국가조직(國家組織)으로서는 부족국가(部族國家)에서 부족연맹국가(部族聯盟國家)로 그리고 고대국가(古代國家)로 넘어가는 정치적(政治的) 사회적(社會的) 발전(發展)과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고총고분(古冢古墳)은 삼국(三國)의 고대국가(古代國家)와 대개는 연결시켜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은 막연하게 연결시켰을 뿐이었는데, 이제 좀더 명확한 선(線)을 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段階)에까지 도달(到達)할 수 있게 된 듯한 기분이데, 역시 문외한(門外漢)의 주먹구구식(式)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고대(古代)의 문화교류(文化交流) 관계인데, 우리가 항상(恒常) 관심을(關心)을 가져야 될 분야(分野)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대외관계(對外關係)라는 것은 실상 그렇게 중요(重要)한 것은 아닙니다. 대외정책(對外政策)이나 대외진출(對外進出)이라는 것은 국내적(國內的)인 사회적(社會的) 발전(發展)과 연결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연(自然)히 풀려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은 우리의 상식(常識)으로 납득(納得)할 수 없는 설(說)들을 자꾸 내세워 왔습니다. 예(例)컨대 아까 말씀드린 문화권(文化圈)과 같은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고고학(考古學)과 연결시켜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문화(文化)를 북방문화(北方文化)와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관점(觀點)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독자적(獨自的)인 발전(發展)의 가능성(可能性), 가령 청동기(靑銅器)만 하더라도 청동단검(靑銅短劍)의 양식(樣式)이 중국(中國)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좀 더 독자적(獨自的)인 문화발전(文化發展)의 가능성(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대(古代)에 있어서 문화(文化)의 전파(傳播)라는 것은 뜻밖에 광범(廣範)한 것이고 그렇게 쉽게 단정(斷定)될 수 없는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외부(外部)에서 문화(文化)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어 일부(一部)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스럽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外部)의 문화(文化)를 그냥 받아들여서 썼다 혹은 똑같은 물건(物件)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자기(自己)의 구미(口味)에 맞게 만들어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구분하여 생각해 볼직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過去)에 우리 민족(民族)의 민족성(民族性)과 연결시켜서 자칫하면 우리 민족(民族)을 의타적(依他的) 민족성(民族性)의 소유자(所有者)로 만들어버린 예(例)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注意)해서 세밀(細密)하게 관찰(觀察)하고 또 주위(周圍)의 여러나라 것과 비교(比較)해서 보는 그런 관점

(觀點)이 요구됩니다. 몇가지 특징(特徵)이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곧 거기다 선(線)을 그을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점도 있다 하는 것을 똑같이 강조(強調)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형성(形成)된 문화(文化)가 일본(日本)에 끼친 영향(影響)이 항상(恒常) 주목(注目)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임나문제(任那問題)와도 연결(連結)이 됩니다. 북한(北韓) 같은데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출한 의견(意見)이 나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 것으로 말하더라도, 일본(日本) 천리대학(天理大學)의 박물관(博物館)에는 강산지방(岡山地方)의 고분(古墳)의 사진(寫眞)이 걸려 있었는데, 고분(古墳)이 완전한 「피라미드」식(式)입니다. 그런 것이 강산지방(岡山地方)만 아니라 들건대는 각처(各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화적(文化的)인 기원(起源) 같은 것도 대략 판단(判斷)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日本)의 고고학(考古學)에 대한 연구(研究)도 우리로서는 소홀히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유적(遺跡)이나 유물(遺物)들에 대한 관심(關心)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5. 끝맺는 말

생각하는 대로 지켜리다 보니 너무 성급(性急)한 요구(要求)나 빗나간 주문(注文)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문(學問)이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면, 많은 인원(人員)이 오랜 기간 연구(研究)해가는 사이에 성과(成果)도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구기관(研究機關)이란 그리 많지가 못하며 인원(人員)도 적고 보니 진전(進展)이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욕심을 말한다면 이런 제의(提議)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여기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연구실(研究室)이 있다고 하면, 각자(各者) 하나의 담당(擔當)이라고 할까 전문분야(專門分野)를 예컨대 마구(馬具)라든가 차여구(車輿具)라든가 혹은 토광묘(土壙墓)라든가 하는 하나 하나의 중요한 문제(問題)들을 손을 나누어서 형식(型式)을 분류(分類)해보고 연대(年代)를 생각해 보고 하여 하나 하나를 정리(整理)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全體的)인 것도 쉽게 종합(綜合)되지 않겠나 합니다.

구체적(具體的)인 물건(物件)들의 그 형식(型式)같은 것을 세밀(細密)하게 검토(檢討)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역사가(歷史家)들이 문헌(文獻)을 비판(批判)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고고학(考古學)의 기초(基礎)가 되겠읍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토대(土臺)로 해서 인간(人間)의 생활(生活), 과거의 사회(社會), 이런 걸 재현(再現)해 보는 방향(方向)으로까지 관심(關心)을 끌어올려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 실은 김원용(金元龍)선생이 이미 역설(力說)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보 39집(歷史學報 39輯)의 「回顧와 展望」에서 「全般的으로 볼 때 아직도 研究의 方向은 斷片的 個別的이며 本格的인 論文보다도 遺跡·遺物의 發見報告가 대부분이고 綜合的 研究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土器·石器·靑銅器 등 細分된 分野·對象에 對한 集中的 研究는 아직 殆無한 상태」라고 한마디로 표현(表現)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고학(考古學)의 연구성과(研究成果)를 항상(恒常) 살피고 있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방면(方面)에 제일 조예(造詣)가 깊은 김(金)선생의 의견이니까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斷片的)인 고고학적(考古學的) 조사(調査)라는건 전문가(專門家)가 아닌 일반

사가(一般史家)들이 이용(利用)하고 싶어도 이용(利用)을 못하는 형편(形便)입니다. 물론 특정(特定)한 유적(遺跡)이나 유물(遺物)의 하나하나에 대한 정리(整理)라든가 연대(年代) 추정(推定)이라든가 문화계통(文化系統)이라든가 혹은 다른 것들과의 상호관계(相互關係)라든가, 이런 것 만이라도 정리(整理)가 하루바삐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물건(物件)에 대한 것만에 만족(滿足)하지 않고 그걸 통한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재현(再現)이라는데 관점(觀點)을 두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계(學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연구(研究)하는 개개인(個個人)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욱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을 합니다.

조리가 서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해서 미안합니다.